

“배꽃을 지켜라” 나주시 냉해 막기 비상근무



16일까지 작과 불량 최소화

배 개화 시기를 앞두고 나주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배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1일을 전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저온 피해에 대비해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비상근무 기간은 이날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오는 16일까지다. 배는 수분이 이뤄지는 만개 시기에 서리, 냉해 등이 발생하면 작과 불량으로 이어져 큰 피해를 보게 된다. 2015년에는 1538농가에서 무려 1741ha가 작과불량 피해를 봤다. 만개 시기에 일교차가 15℃가 넘는 비(非)정상적인 이상 기온이 생겨도 작과불량 등 피해가 발생

한다. 나주시는 기상청의 날씨 정보를 주시해서리 발생에 유리한 기상조건이 되면 관내 배 재배 농가에 SMS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리는 저녁 기온이 5.5℃ 이하, 낮 최고 기온 20℃ 이하 등 일교차가 크면 잘 발생한다. 서리가 내릴 우려가 크면 연기를 피우거나 미세살수법, 방상판 들리기 등을

해줘야 한다. 시는 정확한 기상 데이터 구축을 위해 관내 30여 곳에 농업기상관측소를 설치하는 등 자동기상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나주시지역은 전국 배 재배 면적(1만3127ha)의 16.9%인 2022ha, 생산량은 5만 9000여으로 19.6%에 이르고 있다. 연간 소득액은 1200억원 규모다. /나주=서충열기자 scy@kwangju.co.kr



광주 송원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6일 전남자연환경연수원에서 단체 줄넘기를 하고 있다.

전남자연환경연수원, 환경·인성교육 수련활동 호응

국제청소년교류재단(이사장 이강열) 전남자연환경연수원(원장 정승준)은 “새롭게 단장한 건물에서 올 첫 청소년 환경교육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자연환경연수원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광주 송원여자고등학교(교장 박남규) 1학년 240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수련회를 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팀 데몬스트레이션(단체 줄넘기), 파이프라인, 바운딩볼을 비롯

한 환경 골든벨, 환경 특강, 환경 버튼 만들기, 축제의 밤, 환경 애니메이션 ‘지렁이 똥 이야기’ 시청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렁이 똥 이야기’는 학생들이 하찮게 생각했던 생물들도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구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됐다. 정승준 원장은 “고등학교 첫 수련활동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은진 교감은 “훨씬 밝아지고 성숙해진 자세를 보니 기쁘다”면서 “2박3일 동안 의미있는 환경교육과 공동체생활로 학생 시절의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자연환경연수원의 ‘환경과 함께하는 세상’은 정부의 인정을 받아 환경부와 전남도가 지원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읍시, 체리농가 재배교육 강화 등 고소득작목 육성

정읍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체리의 생산성을 높여 고소득작목으로 육성해나가기로 했다. 정읍시는 체리가 국내 생산량의 24배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국내산 가격은 수입산에 비해 50%가량 비싼 점에 착안, 체

리를 이 지역의 고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체리의 국내 생산량은 연간 500t이지만 수입량은 이보다 24배가 많은 1만2000t이다. 가격은 국내산 체리가 1kg에 2만원대로 세계 최대 생산국인 칠레산에 비해

50%가 더 비싸다. 국내산 체리의 생산량이 적고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자 국내 체리 재배면적은 최근 3~4년 사이 배로 늘어나 500ha로 추산된다. 정읍지역에서도 소성·응동면 일대 25개 농가가 8.9ha의 체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이 느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 생산농가는 체리 재배 경향이 적어 생산성이 외국에 비해 크게 뒤진다. 외국은 10a 당 체리 생산량이 1t인 데 비해 국내에서는 절반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정읍시는 10a당 체리 생산량을 100kg 더 늘리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체리 재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100리 벚꽃길에서 풍류 즐기세요”

20주년 영암왕인문화축제 개막 ... 체험행사 다채

‘2017 영암왕인문화축제’가 100리에 걸쳐 벚꽃이 휘날리는 전남 영암군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 일원에서 6일 막을 올렸다. 왕인박사 춘향제를 시작으로 풍류남도 화무연, 축제 20주년 왕인박사 학술강연회, 남주골 어울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주 무대인 봉선대 등에서 아시아 전통 의상과 민속놀이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렸다. 특히 개막행사는 브라질, 스위스, 루마니아 등 12개국의 주한 외교사절단을 비롯해 일본 히라카타시, 간자키시, 일한친선협회, 왕인총 환경수호회 등 각국의 외교사절이 참석했다. 인간문화재 양승희 명인의 가야금 병창 공연, 남진·배일호·신유·금잔디·조승구 등이 출연한 MBC 축하방송 등 화

려한 공연도 펼쳐졌다. 축제 이튿날에는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으로 ‘기(氣)찬골 잔치날’, ‘왕인박사 일본 가요 미니 페레이드’, ‘왕인학생 예술대회’, ‘왕인 어린이 재롱잔치’, ‘김현철의 윤패한 오케스트라’ 공연 등이 마련됐다. 주말에는 ‘윤도현밴드(YB) 빅 콘서트’, ‘영암민속씨름단과 한판’, 축제장 전역을 무대로 하는 체험 행사 ‘왕인에(變) 어드벤처 랠리’, ‘외국인 미션 레이스’ 등 관광객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다”며 “재미 가득한 축제장에서 방문객들이 많은 추억을 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기자 jbh@kwangju.co.kr

방치된 전주 아중역 녹색쉼터로 재탄생

2억원 투입 내달 완공

전라선 복선화 사업 이후 방치됐던 전주 아중역(폐역)이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녹색 쉼터로 탈바꿈한다. 시는 오는 5월까지 국비 등 2억여원을 들여 아중역(폐역) 주변 1천200㎡를 녹지와 휴식시설 등을 갖춘 ‘시티가든’으로 조성한다. 아중역 주변에 선주목과 왕벚나무, 황금사철, 양매자 등 나무 9종 5천여그루를 심고 꽃 종류 4천300여본을 식재한다. 또 429㎡ 규모의 잔디도 조성한다. 시티가든이 조성되면 인근 주민이 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할 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인근 아중호수공원과 함께 이곳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티가든이 조성되면 낙후된 아중역 주변이 보다 쾌적해지고 아중역이 열린 녹색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전주자연생태체험학습원 조성, 아중호수 어린이공원 생태놀이터, 아중호반도시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녹지공간과 쉼터를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주 아중역(폐역)이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녹색 쉼터로 탈바꿈한다. 시는 오는 5월까지 국비 등 2억여원을 들여 아중역(폐역) 주변 1천200㎡를 녹지와 휴식시설 등을 갖춘 ‘시티가든’으로 조성한다.

녹동농협, 조합장기 게이트볼 대회 성료

녹동농협은 “최근 도양읍 전전후 구장에서 도양읍과 도덕면 5개팀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양읍과 도덕면 원로조합원의 건강 증진 및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합장기 게이트볼

대회는 올해로 9회째다. 양수원 녹동농협조합장은 “녹동농협이 참가한 가운데 조합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양읍과 도덕면 원로조합원의 건강 증진 및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합장기 게이트볼 /고흥=주각중기자 gjju@

군산 신흥동 일대에 근대마을 조성

군산시 신흥동 일대의 고지대 주거지가 일제강점기와 근대시대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군산시는 “2019년까지 신흥동 1천㎡ 부지를 ‘근대마을 추억여행 체험공간’으로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 생활체험관, 근대문학 주제관, 근대문화 놀이터, 근대

영상·음악관, 예술인 거주공간 등이 들어선다. 일제강점기 모습을 복원한 옛 도심의 근대역사박물관, 고우당, 동국사, 일제강점기 은행 등과 연계해 근대역사관광지로 거듭난다. 시는 근대마을 디자인을 수립해 7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산=박국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중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먼트 현대아파트매 매 19억9천만원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면소재지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안도군 약산면 득암리 팬션·시할·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장기투자에 최적 땅 7416㎡ 바닷가임 194천
- 담양군 금성면 경관좋은 9710㎡ 전원주택 단지적합 9억2천
- 장성군 북이면 면사무소에서 3km, 입암산밑 전과산 78197㎡ 한옥마을, 전원주택지 적합 경관·교통좋은 11억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경관좋은 남향땅 2738㎡ 매도 2억8백

투자·매도·교환

- 독립섬 56233㎡ 신안군 일대면 새천년과 인근 3억5천
- 중흥동 소방대로상업지 175㎡ 자동차시설 적합 3억천
- 소촌동 자연녹지 1530㎡ 투자에 양호할 10억천
- 유동 상업지 331㎡ 상가·원룸 등 적합 매도 4억6천
- 월산동 보리아파트부근 상가1층 65㎡ 다용도임 6300만원
- 장흥군 장흥읍 공업지역 2390㎡ 투자에 좋은 8500만원
- 함평군 해보면소재지 주거지역 전 4329㎡ 매도 2억천
- 완도군 군외면 삼두리 전 5820㎡ 1억2천, 1965㎡ 3천6백
- 대안동 상업지 787㎡ 주상복합건물 적합 14억3천
- 서구 마북동 2251㎡ 다용도 건물 신축 적합 21억
- 무안군 무안읍 전 5293㎡ 농장 전원생활용 1억
- 담양군 수북면소재지 7971㎡ 소형아파트 적합 15억2천
- 화순읍 복송아·매실·검나무농장 40059㎡ 매도 10억5천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5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장용 1억천

상가건물

- 서구 교동요지 대지 1657㎡ 건평 7768㎡ 요양병원등 적합 49억
- 월산동 대지 126㎡ 건물 297㎡ 은행 4억 매도 6억6천
- 월산동 농성초교너편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 충장로5가 도로점 대지 265㎡ 건평 995㎡ 매도 11억천
- 월산동 문진각부근 대지 160㎡ 건물 419㎡ 은행2억 매도 5억3천
- 유동 원룸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룸5, 투룸7 안입은 공실임, 은행 2억천 보증금 9300 월 350천 3년된 건물 매도 6억6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급매 - 1억 500만원
- 임대 - 보 1,000만원에 월 50만원 가능
- 주인직매
- H. 010-8902-79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능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